

문화광장



노미경 (사)한국스토리텔링작가협회 제주지부장

누구나 꿈과 희망을 갖고 삶을 살아 가지만 경제적 환경이나 또 다른 연유로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대부분 많이들 포기하고 살아가...

또 다른 삶의 가치, 엔잡러! 워라벨! 소확행! 하며 살아요

디어의 무한한 발전으로 멀티미디어의 신기술과 활동 영역 또한 지구촌으로 완전히 정착되면서 무수히 많은 콘텐츠가 쏟아지고 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티브들은 SNS의 선두가 돼 새로운 삶의 가치가 만들어...

삶의 가치를 하나로 정할 수 없고 사람마다 삶의 가치와 척도를 일괄되게 정할 수 없으며 아무나 무엇이든지 가능성의 여지를 열어 놓는다는 뜻과 바뀌어 이해해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 환경과 조합만 잘 해본다면 지속 가능하고 성장하는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이다. 그 과정에서 무한한 재능으로 유연한 인재, 시대의 흐름을 잘 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흥미로움을 찾을 수 있다.

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 넣은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하고 싶어 했던 일을 했을 때, 좋아하는 일을 시도 해볼 때, 아니 시도하는 순간 가슴 떨림... 일상에서의 작지만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이다. 위에서 열거한 엔잡러도 워라벨도 소확행의 공통적인 의미를 찾는다면 삶의 또 다른 가치와 행복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도적인 생각에서 비롯된다.

열린마당

쉽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고은애 제주시 용담2동주민센터

우리가 부동산 매매나 금융거래 시 주로 사용하는 인감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인감증명규칙으로 시작된 제도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이 오래된 방식의 부작용이 제기 돼 왔다. 인감도장의 위·변조 및 분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을 하고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해 편리하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용승인을 받으면 2년 동안 정무24에 접속해 어디서든 발급할 수 있다. 대리발급이 불가하고 인감에 비해 용도가 세분화 돼 있어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안전하다. 주민센터에서 제증명 발급 업무를 하다보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도장을 찾을 수 없어 새로 도장을 만들고, 변경신고한 뒤 발급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본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면 앞의 두 절차는 생략하고 발급만 하면 되는데 아직 낯설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인감증명서를 선택하는 일이 일반적이다. 용담2동에서는 관내 주민 수요처인 금융기관을 방문해 홍보하고 있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민원인들에게 체험 발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감보다 발급과정이 쉽고 안전성은 강화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널리 활용되길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율 79% 머물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제주도가 올해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액 121억원 달성을 위한 정리가간을 운영하며 안정적 지방재정 운영에 총력. 제주도는 지방세 징수율이 평균 96%인데 반해 세외 수입은 과태료 등에 대한 낮은 납부율 등으로 7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18일 호소. 제주도는 앞서 지난 8월 농어업 인회관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우수사례를 공유 및 효율적인 정리를 위한 '징수보고회'를 열고 대책마련을 모색. 조상윤기자

위 구성이 과연 중립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과연 그렇게 됐을까"라며 의문을 제기. 그러면서 "(특위에) 공문화 단어를 쓴 것은 적절한 선택이었다"며 "활동 내용중에도 공문화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재차 강조. 오은지기자

제2공항 특위 구성 여진 ○...지난 15일 본격 활동에 돌입한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의회 내부 갈등 여진이 지속. 18일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안창남 의원은 7명으로 선임된 특

개인정보 보호 직원교육 ○...제주시가 시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직원 교육을 실시. 시는 20일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개인정보 유·노출 침해유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정보보안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직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 제주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궁금했던 점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언급. 고대모기자

제2공항 특위 구성 여진 ○...지난 15일 본격 활동에 돌입한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의회 내부 갈등 여진이 지속. 18일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안창남 의원은 7명으로 선임된 특

사설

제2공항 갈등 해소 새로운 돌파구 기대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꾸려졌습니까. 그동안 우여곡절도 겪었습니다. 제2공항 특위 구성을 놓고 제주도의회 내부에서 갈등이 표출되는 등 파열음이 적잖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도의회 차원의 특위가 활동에 돌입하면서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도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위는 이날 위원 7명이 선임되면서 1차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안전 수렴을 위한 계획 수립, 갈등해소 방안 마련, 도민안전 수렴 결과에 대한 결의안 채택 등 도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물론 진통 끝에 제2공항 특위가 구성됐지만 향후 추진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당초 초원 내용이었던 '공론화'가 결의안에서 빠지면서 갈등 해소방안을 어떻게 도출할지 우려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박원철 특위 위원장도 "지역 현안을 스스로 풀어내는 지방의회가 되겠다"며 그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국회, 제주도정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제2공항을 추진하는 국토부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안 고시를 앞두고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공론화 불가 입장을 밝힌 제주도 역시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만큼 제2공항을 서두르거나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려 5조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환영받지 못할망정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의회 특위가 제2공항 갈등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길 기대합니다.

부실·불법업체 속출 지역경제 악영향 우려

호황을 누리던 제주지역 건설경기가 꺾이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제주지역 산업구조상 내수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니다. 하지만 건설경기가 침체에 빠지자 호황일 때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던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도내 건설경기는 2016년을 기점으로 하강곡면에 접어들었지만 오히려 신규 등록업체수는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수주액이 줄어드는데다 업체의 난립은 곧 부실·불법업체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민간부문의 타격이 큼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건설수주액은 3460억 원입니다. 전년에 비해 공공부문은 11.6% 감소했고, 민간부문은 51.4%나 급감했습니다. 주택거래 건수도 전년에 비해 28.3%나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주도 지역서 올 들

어 9월까지 신규 등록된 건설업체는 172개사(종합 22·전문 150)로 전년 대비 8%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2017년 대비 종합건설업 22곳과 전문건설업 121곳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는 제 살 깎기식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실·불법업체가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제주도 관내에서만 지난달까지 자본금과 기술능력 미달 등으로 등록말소 92건, 영영정지 84건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경쟁력을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또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설경기 위축은 곧 지역경제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주게 마련입니다. 산업 전반을 들여다보면서 구조적 문제를 포함한 장단기 대책의 밑그림을 제시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합병공고 및 주권제출공고 오원종합건설 유한회사(“갑”)는 2019년 11월 8일 사원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 재운종합건설(“을”)은 같은 날 주주총회의 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합병당사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기가 바뀔 때 “을”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는 주권을 위 같은 기간에 “을” 회사에 제출하여 주기가 바뀔다. 2019년 11월 19일 “갑” 오원종합건설 유한회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인덕면 청천중앙로 44-1 대표이사 김 형 미 “을” 주식회사 재운종합건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인덕면 청천중앙로 44-1 대표이사 오 경 환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폼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원천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릿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693-2000, 010-2696-987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대 勢 세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19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4회, 제주지역 '최다' 기록 도내 언론사 최초 '마크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18년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

백도라지 분말 관상과 사랑 추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약원인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술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